

해외출장보고서

I. 출장 개요

1. 출장건명:
2. 출장목적: ASEAN+3 동아시아쌀비축제(EAERR) 제10차 사업추진위원회 참석
 - ASEAN+3 쌀 비축제 협정문 논의
 - ASEAN+3 농림장관회의 제출 보고서 논의
 - EAERR 시범사업 진행상황 점검
3. 출장지역: 태국 춘부리
4. 출장기간: 2008. 8. 25 - 8. 29

5. 출 장 자

부서명(기관명)	직 급	성 명
농산업경제연구센터	연구위원	성명환

6. 출장일정

일 정	주요 활동내역	비 고
8. 26	회의 참석	
8. 27	회의 참석	
8. 28	회의 참석	

7. 회의 참여자

- ASEAN 10개국과 한국, 중국, 일본을 포함한 13개국 대표

II. 주요 출장 결과

1. 회의 개요

□ 주요 논의 의제

- ① EAERR 시범사업의 본 사업(permanent scheme) 전환 여부
- ② 아세안+3 쌀 비축제(APTERR) 협정문(안) 협의

□ 기타 논의 의제

- ① APTERR 가이드라인(안) 협의
- ② 아세안 식량안보 비축제(AFSRB)와 APTERR과의 연계성 논의
- ③ 베트남-필리핀 간의 Tier 1 이행 상황, 태국-필리핀 간의 Tier 1 계약 진행 상황
- ④ 캄보디아, 인도네시아, 미얀마에서의 Tier 3 이행 상황
- ⑤ 제11차 동아시아 쌀 비축제 회의 시기·장소

2. 주요 논의 내용

□ 아세안+3 쌀 비축제(APTERR) 본 사업 전환 여부 협의 결과

- 사전 배포된 의제(안)에는 APTERR의 본 사업 전환을 기정사실화하고 2008년 10월 예정인 아세안+3 농림장관회의 시 본 사업 전환을 승인받겠다는 내용였으나, 일본의 강력한 반대로 본 사업 전환에 대한 의제 자체가 채택이 안 됨
 - 효과적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시범사업을 1년 더 연장(2010년 2월까지)하기로 합의(시범사업 재정은 일본이 부담)
- 본 사업 전환에 대한 일본과 중국의 입장
 - 일본은 APTERR 체제 전환시 필요한 제도적·기술적·재정적 측면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, 본사업 전환을 논의하기에는 여건이 미성숙한 단계라는 입장
 - 시범사업 중 Tier 1 및 Tier 2 사업에 대한 이행 불충분
 - 각 국의 재정적 기여약속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등 효과적 운영체계가 구체화될 필요

- 중국은 본 사업 전환을 논의하기 전에 시범사업의 모든 활동에 대해 완전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

□ 아세안+3 쌀 비축제(APTERR) 협정문(안) 협의 결과

- 비축쌀의 원산지 관련 논의 결과
 - 원산지 제한 관련 의제는 각국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추후 지속 논의하기로 함
 - 우리나라와 일본은 원산지 제한이 MFN 위반이라는 입장
 - 태국 및 아세안 사무국은 지역간 협정에서는 원산지 제한을 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
- 분쟁해결 규정 신설 관련 논의 결과
 - 협정문(안)에 분쟁해결 규정 문구를 채택하였으며 추후 지속 논의하기로 함
- 발효조항 관련 논의 결과
 - 13개국 중 7개국만 비준하면 발효하게 되는 부분에 문제 제기
 - 전체 국가 비준 방식 또는 협정문 보완에 대해 추후 지속 논의하기로 함

□ 기타 주요 의제

- APTERR 방출 가이드라인(안) 협의
 - 가이드라인 및 표준운영절차(SOP : Standard Operating Procedure)를 원칙적으로 채택하였으나, 방출방법에 대해 추후 더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기로 함
 - 일본은 APTERR 가이드라인을 새로 작성하기 전에 기존에 있던 EAERR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함을 지적
- 아세안 식량안보 비축제(AFSRB)와 APTERR과의 연계 논의
 - 1979년부터 운영중인 아세안 식량안보 비축제(AFSRB: ASEAN Food Security Reserve Board)와 APTERR은 별개로 운영하기로 함

- 중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가 APTERR 사무국을 AFSRB 사무국 산하에 두도록 하는 안을 선호하였으나, 일본의 강력한 반대로 별개 운영 방안을 계속 논의하기로 함
- 일본은 ASEAN 및 ASEAN+3를 별개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나 별개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최종 입장 표명을 유보함

- 11차 EAERR 회의 시기 및 개최국 결정
 - 2009년 2월 캄보디아에서 개최하기로 함

□ 관찰 및 평가

- 시범사업이 1년 더 연장되기는 하였으나, 회원국간 입장차가 상당히 크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므로 본 사업 전환 가능성을 현재로써는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
 - 시범사업 연장 외에 제10차 회의에서 합의(agree) 된 것은 사실상 거의 없음
 - 그동안 표면적 지지를 하던 중국은 이번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본 사업의 효과성에 문제 제기
 - 일본 역시 시범사업을 재정적으로 후원하기는 하나, 본 사업 전환은 시기상조라는 입장
- 향후, 우리나라의 본 사업 전환에 대한 입장 표명은 중국 및 일본의 동향을 충분히 관찰하여 결정할 필요
 - 제11차 회의 참석 전 중국·일본 대표와 충분한 사전 조율
- 또한, 본 사업 실시 가능성에 대비하여 외교통상부·기획재정부 등과 지속 협의

3. 동아시아 쌀비축제도(EAERR)의 주요 내용

□ EAERR 사업 추진과정

- ASEAN 10개 국가간 식량비축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으나 그 비축 규모가 작고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지 못하여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치 못

함. 보다 조직적이고 실질적인 쌀 비축관리제도의 시행 필요성 대두

- 2001년 ASEAN+3 농림장관 회의시 중국, 일본, 한국을 포함하는 “동아시아 비상 쌀비축사업(EAERR: East Asia Emergency Rice Reserve)”을 추진
 - 동아시아 쌀 비축관리제도 개발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2004년 3월부터 EAERR 시범사업을 실시
 - 3년간 시범사업(2004.3~2007.2) 이후 본사업 전환을 추진하였으나 참여국간 의견 불일치로 시범사업을 2009년 2월 까지 연장
 - 2008년 8월에는 효과적인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시범사업을 1년 더 연장(2010년 2월)하는 것을 제안하기로 합의

□ EAERR의 원칙

- 동아시아 쌀비축관리체제(EAERR) 참여국
 - 동북아시아: 한국, 일본, 중국
 - 동남아시아: 태국, 베트남, 캄보디아, 미얀마, 라오스, 말레이시아, 싱가포르, 브루나이, 인도네시아, 필리핀
- EAERR의 비축물량은 지원약속물량(Earmark)과 기여물량(Stockpiling)으로 구성
- 지원약속물량
 - 지원약속물량은 각 국에서 보관하되 회원국간 사전합의에 따라 방출조건이 발생되면 비축용 쌀을 방출함.
 - 참여국은 비상시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물량에 대해서만 구속력이 발생하며 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약속물량은 방출되지 않음
 - 국제시장의 쌀 수급여건에 따라 가격 및 방출조건을 회원국간 매년 합의에 의해 실시
 - 현재 EAERR 약정 물량은 327,000톤임.
- 기여물량
 - EAERR 쌀 비축제에 기여한 물량으로 비상시나 원조용으로 사용
 - 물량이 1년 이상 미방출시 자동적으로 동아시아 빈곤퇴치 사업으로 사

용

- 비축물량의 방출은 아세안+3 쌀 비축위원회에 의해 마련된 규율에 따라야 하며 자국 할당물량의 방출 후에는 방출물량 만큼 보충
- 비용은 Earmark 쌀의 경우 수익자 부담, 원조의 경우 기증자 부담을 원칙

□ EAERR 시범사업 진행 상황: Earmark 경우

- Earmark system (Tier 1과 2) : Tier 1 이행 및 진행 상황
 - Tier 1 : 식량 공여국과 수령국 간 상업적 거래조건에 따라 사전에 계약을 체결, 비상시에만 실제로 물량이 이동하는 방식
 - ※ Tier 1과 Tier 2의 기본 원칙은 비슷하나 대금 지불기간 및 수혜국에 대한 부채 탕감 가능성이 다름
- 베트남과 필리핀간의 Earmark 물량의 방출
 - 필리핀이 베트남 쌀 10,000톤을 구매하는 계약이 2007년 체결 (MOU 및 구매계약서)
 - 베트남의 자연재해 및 베트남 국내 쌀 가격 인상 등으로 물량 방출 이행이 지연되고 있음
- 태국과 필리핀간의 Earmark 물량의 방출
 - 태국의 약정물량 15,000톤을 필리핀에 방출하는 협의중
 - 필리핀의 태국쌀 구매계약 진행은 상호 희망가격차로 인해 계약이 지연되고 있음

□ EAERR 시범사업 진행 상황: Stockpiling 경우

- Stockpiling system (Tier 3) : Tier 3 이행 및 진행 상황
 - Tier 3 : 쌀의 소유권을 동아시아쌀비축체제에 이관하는 방식(현물은 원칙적으로 기여국 보관)
 - 기여물량이 1년 이상 방출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동아시아 빈곤퇴치 사업으로 사용

- 캄보디아 : 310톤의 쌀을 재난지역 10,000여 가구에 공급(2007.6~2008.1)
- 인도네시아 : 200톤의 쌀이 재난지역 10,000 가구 이상에 제공될 예정
(2008.6~12)
- 미얀마 : 태풍피해 지역에 50,000달러 예산규모로 프로그램을 진행할
예정(2008.8~10월)

□ 시범사업 실행의 문제점

- 최근의 국제 쌀가격 상승 위기에 EAERR 시범사업이 큰 효과를 발휘하지
못했다는 견해
- EAERR 시범사업 참여국간 입장차가 크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
아있는 상황
 - 시범사업 중 Earmark system 사업에 대한 이행 불충분
 - 약정물량이 적어 식량위기사 대처 부족

□ 공동비축제도의 효과

- 자연재해에 의한 식량부족시 확실한 식량수입처의 확보로 식량에의 접근
성을 제고
 - 쌀의 현금구매 이외에 장기차관, 원조 등을 통하여 식량위기 대처
- 동아시아 지역간 농업협력을 통하여 국가간 상호보완적인 균형있는 발전
을 도모
 - 쌀 생산, 소비, 재고, 산업정책 등 모니터링을 통하여 지역협력을 강화

□ 시사점

- 효율적인 운영체계 구축 필요
 -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방출조직 설립의 구체화
 - 방출기준은 소비상상태, 비상상태, 장기적 해결과제로 구분하여 그 지
원 기준을 명문화

○ 중장기 쌀 비축 규모 확대 및 기능 강화

- 재난으로 인한 긴급 요구 물량에 대응하기 위해 비축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
- 쌀 관련 경영정보 네트워크 체계를 수립하여 각 참여국의 쌀 수급, 가격, 무역을 모니터링

○ 각 국의 재정적 기여약속 및 협력 강화

- EAERR 쌀관리체제 이행과정에서 수반되는 유지 및 관리비용은 참여국들의 동의하에 그 분담기준이 객관화되어야 함